

“발굴전담기구가 고고학 앞길 막아”

부산대 박물관 신경철 관장

“문화재 발굴전담기구의 상당수는 문비와 기득권 유지를 위한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고학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책임은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영남고고학> 제 34호에서 ‘발굴전담기구, 이대로 좋은가!’라는 시론에서 현 문화재 발굴전담기구 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부산대 박물관 신경철(53·사진) 관장. 지금의 유적 발굴 체계 하에서는 젊은 연구자들이 의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없음을 알기에 후대까지 모를 불이익을 무릅쓰고 문화재청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신 교수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설립된 발굴전담기구들은 고고학계의 건강성과 학문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한다”며 그 같은 문화재청 잘못을 발굴전담기구가 난립하게 된 것은 문화재청 탓이라고 주장했다.

발굴작업 부실, 보호재단 허점, 문화재청 잘못. 발굴전담기구들을 감독하고 육성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임에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설립, 퇴임관료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한편 재단의 재정적자를 발굴조사비를 활용해 충당하는 등 변칙 운영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재청의 행태를 지적해온 것도 그대로 답습해 자체 발전연구원 산하에 발굴조사단을 두고 발굴조사비의 상당 부분을 발전연구원 적자 보전에 전용하고 있다고 신 교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구조는 젊은 연구자에게 기득권자를 위한 희생은 강요해 고고학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신 교수는 “먼저 문화재청이 비정상적인 산하단체들을 개선하거나 정리하고, 문화재청은 발굴기구의 감독 및 육성에 전념할 것을 주문했다. 그래야 ‘한국의 발굴전담기구’가 정상적으로 육성되고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익순 기자

“공안 공부 등한시하는 경향”

‘선과 교’ 관계설정·지도방법 등 뜨거운 토론

제15회 전승련학술대회 주요 논점 요약

“강원 과정을 마치고도 손에 올바른 수행의 지도를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인에게 명확한 수행체계를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날 간화 중론은 보편적 개념과 살아 있는 언어로 최상승의 간화 종지를 재구성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언어와 화석이 된 전통문화로 뒷걸음치고 있을 뿐입니다.”

“참선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7월 20·21일 양일간 제9교구본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전국승가학인연합 주최로 열린 ‘제15회 전승련 불교학술대회’.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사미승 200여명이 참가, ‘교학과 선의 관계’, ‘간화선 수행과 공안 공부의 문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조계종의 수행법인 간화선의 중요성은 대개 인정하면서도 교학과 선의 관계 설정, 지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첫째 논제인 ‘교학과 선의 관계’와 관련, 논주인 은혜사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금강경, 능엄경, 원각경에서 공안적 요소를 찾아내 선(禪)과 교(敎)가 들어 있음을 밝혔다. 또 강원을 화불장(佛場)으로, 선방을 선불장(禪佛場)이라

불러는 예를 들며 수행법이 공부와 하고 시합에 응시하듯, 교는 선의 예비과정이며, 선을 듣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월호 스님(해인사 강원 강사)은 “경학이나 참선 중 하나만 택해 계속 공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양관 스님(동화사 강원 강사)은 “강원(승가대)·동국대와 아울러 기본 교육 기관 중 하나인 기본선원은 화불장을 뛰어넘어 선불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교학과 선의 선후관계 주장에 어긋난 것이 아니지 않다고 했다.

둘째 논제인 ‘간화선수행과 공안공부의 문제’에 대해 논주자 나선 성본 스님(동국대 교수)은 “선불교의 수행체계는 조주의 무자화두 참구를 통한 사마타 수행(止)과 공안 공부를 통한 위빠사나 수행(觀)을 골격으로 하는데, 한국불교에서는 공안 공부가 등한시 돼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간화선의 수행은 중생심에서 무자(無子) 공안을 참구하는 방편적인 시작(始覺)을 본각(깨달음)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구조”라며 “이렇듯 의심을 일으키고 의심을 참구한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전향하는 본래심의 참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눌·혜심·보우·경봉 스님이 무자 화두 참구를 강조했다. 대해 스님이 조주의 무자 화두만을 유일하게 강조했다라는 점을 들며 무자 화두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원 스님(동국대 교수)은 “남자의 안목에 맞는 공안을 내리면 되지 굳이 송대의 선법만 무자공안에 전착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고, 지환 스님은 ‘이렇듯’에 대한 성본 스님의 주장이 “학인 스님에게 혼란만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술대회의 주제가 오랜 수행 경험이 있는 선 수좌들에게나 적합한 것”이라며 학인 스님들에게는 “참선 수행 준비 방법 또는 구체적인 선 수행 방법 등이 더 절실한 주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등이 참석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은 기초법어를 통해 “간화선의 특징인 활구참선을 통해서 여러 생이 걸릴 성불을 금애에 마칠 수 있다”며 간화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활구참선을 위해서는 선지식 스님을 찾아가서 화두를 바로 간택 받고 일상 속에서 오매불망 의심과 화두제목을 같이 쟁야 한다”고 법문했다.

박익순·배지선 기자 info@buddhanews.com



200여 학인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동화사에서 열린 전승련 학술대회 모습.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3>



존재의 의미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는 동물이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사람은 무의미한 것에 대해 참지 못한다. 같은 맥락에서 심심하고 따분한 것 또한 견디지 못한다.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두게 된 이상 사람은 의미를 찾아 헤매게 되며, 이로 인해 수많은 구도자가 등장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표현이란 형태로 많은 예술가가 탄생하기도 했다. 과연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 지구상에 태어난 수많은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하여 사라져 간다. 출생의 숫자만큼 죽음의 숫자가 기록되는 것이다.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미를 묻는 행위는 마치 지금 비 오는 비눗방울에서 내리는 빗줄기와 바람을 향해 몸의 방향을 바꿔가며 웅크리고 떨고 있는 갈매기에게 너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라고 묻는 것과 같다. 그 갈매기는 그렇게 태어나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 갔고, 또 다른 갈매기가 태어나 그 자리를 대신 할 뿐.

자신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구도의 끝은 그 출발점이 된 의미를 내려놓음으로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 마무리 된다. 다시 말하면 마치 갈매기가 태어나 열심히 살다가 특별한 의미 없이 그저 죽어 가듯이 사람도 자신의 무의미를 받아들여 줄 때 스스로 부여해서 그토록 자신을 얽매고 가두고 있

인간은 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묻는가?

생존본능 따른 애처로운 몸짓 일뿐...

한다. 우리는 이것을 생존본능이라 부른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묻는다. 이러한 인간의 지적 욕구는 생존 본능과 연결돼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명을 늘리고자 하는 애처로운 몸짓마저 하게 만든다. 생명이라는 개체를 조금이나마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현대의 생명과학도 역시 이러한 애처로운 몸짓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아무리 생명과학의 발달로 각 개체의 행상을 유지하는 시간이 조금 늘어난다 해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죽어가는 자그마한 끈끈과 우리 인간들과 결국은 서로 다를 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렇듯 동일한 죽음을 앞두고 지금까지 수많은 구도자가 해왔던 것처럼 굳이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묻는 행위란 도대체

무의미한 것은 참으로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것이다. 심심한 것이야말로 참으로 존만한 것이다. 끝없이 무엇인가 찾아 헤매는 험담으로부터 놓여나 생명의 다양함으로 가득 찬 이 화엄의 세상에서 그동안 하찮게 생각하던 미물과 더불어 내가 이대로 평등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빛내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인간만의 특별한 의미 부여는 전혀 필요 없음을 알게 된다. 부처님의 열반이 적멸(寂滅)을 뜻하듯, 그래서 불제자라면 우리 시대의 생명과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바빠지고 있음을 알아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 그게 내 열반승이다’라고 하신 서암스님의 담담한 말씀을 새겨야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더 빠르니 더 좋으니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1Box(4.4×4.4)4만원



- 1. 법의기도 - 제장기도, 관음기도, 영계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 / 구직정보 - 공양부, 영계부, 운전기사모집, 사찰종교인력모집, 일반인력모집 등
3. 알뜰정보 - 취업, 이민, 귀환정보, 불교종교인력, 각종불교경매, 수련회, 동양회, 부부 등
4. 불교종교정보 - 각종불교종교, 불교종교인력, 영계 및 입계 등
5. 알뜰정보 - 광고 / 사교 / 대외 / 대외 / 대외 / 대외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악,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게임, 사무용품, 비품, 경수기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작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055-882-3455 016-428-6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중 태종 아귀 영가(낙태 유산) 49재 천도 천문도량 (9월 경 제2회 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은 함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범패의식 천수산점바나 도록신안라 재재식춤 행사에 염불해 드립니다 051)468-7374 018-523-7374

참선스님 보세요 ◎ 위장, 관절장애, 변비 ◎ 냉증(진신 寒瘕) ◎ 수매(잠, 졸음), 仙食 ◎ 기력 저하, 기혈 불통 ◎ 상기(上熱下冷) 011-9715-6071 02)878-2515 *원만수행을 위한 10주년 전문 연구

역학개이지도 사주에 필요한 모든것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스님본은 보시금.100만원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범음범패, 전통의식, 각종행사 해 드립니다 점안식, 49재, 상주권공,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나비춤, 사물타루는 법, 화 청, 모든 재의식 경전, 민속, 역학 등 염 불 배우실 확인 모집 중 대광명사 부설 동양불교대학 탐우 합장 02)939-3327

명당 범자기 관용사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저적중 수여. 명당 탐자기 관용사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명상의 말씀과 불시낭송 테이프 제작 및 전국 사찰의 각종행사 및 의식에 낭독하실 여성우주함 <초보자도 3개월 학습 훈련 가능자> 017-409-9599

서울 중심부에 있는 작은 암자입니다 운영하실분 연락주십시오 02)391-8579

실버하우스 오픈 쾌적한 산중도량 신축 주거공간 호스피스(간병)제공 입주 보시 3천만원 연락처 031)867-1801~2 016-703-6648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시다림, 각행사 불공 ▷바라,나비무를 겸한 우리말의식 016-9414-1525 02)2212-0686

풍기정품홍삼엑겔드 100g×60포 100g×30포 *공정직거래. (선물용, 단체주문 환영) 풍기홍삼정품유통상사 *주문처 : 054)634-3429 *휴대폰 : 011-9373-3778

백련꽃차 (생화) 백련잎차 (뒤음) 041)542-4594

레이키(Reiki·靈氣)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기치로 원격치료 능력이 됩니다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행행이 있습니다 *유스레이키 60만원/가부네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2-3일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역학 수강생 여러분 10초내 운세를 맞추면 배우러 오세요 *교재 : 사주천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사주전체 대흐름(소장포함)을 알고나면 격국용신 및 신약신강을 신경쓰지 않아도 속사원히 통변할 수 있습니다.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 개인 지도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250만원 *지도 : 대주 스님 HP: 011-741-0867 ☎ 02)926-1259

성수철학원(학인모집)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우식지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원하게 개인(해)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논치 안법도 있고, 다 맞으니까 ▶사주, 산수, 점성,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정중 ▶불자님의 포교 일화(행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풀다) ▶전국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임. ▶전화 강의로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치질 *재발 잘되는 치질 *한방 비법으로 완전치유 *오래된 치질이나 암질 특히 효험 *스님들에게서 특별 보시함 ▷관공산 천통정사 017-533-1356 053-986-1355